부탄가스 연소기 사용 조심하세요!

가스안전공사, 2004년 사고 21건 발생 ... 5년간 인명피해도 134명

주5일 근무, 여름휴가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가 급증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04년 이동식 부탄연소기 관련사고는 21건으로 전체 가스사고 110건의 19.1%에 달했으며 2003년에 비해 75% 급증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는 2000년 11건, 2001부터 2003년까지 매년 12건이 발생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5년간 사망 3명, 부상 13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사용중 사고는 45건으로 과대조리기구 사용 22건, 접합용기 장착불량 9건, 점화 미숙 14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접합용기 보관 및 취급 중 발생한 사고는 22건으로 접합용기를 화기근처에 방치해 발생한 것이 13건이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부탄캔의 올바른 장착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부탄캔을 다 쓴 후에는 부탄연소기에서 꺼내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다 쓴 부탄캔은 구멍을 내 버릴 것 등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큰 조리기구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 조리기구의 열이 부탄캔에 전달돼 부탄캔이 폭발할 수도 있다.

<화학저널 2005/07/06>